

국가직 9급 총평

영역	문항 번호	내용	난이도
음운론 (1문항)	5번	‘부엌일’ 음운의 변동	하
형태론 (1문항)	1번	품사 구분 하기	중
문장론 (1문항)	11번	높임표현	하
어휘론 (1문항)	10번	허난설헌, <사시사>+한자성어	상
의미론 (1문항)	19번	의미의 확대, 축소 ‘말미, 휴가’	중
문학 (6문항)	3번	이강백, <파수꾼> 내용 파악	하
	9번	박인로, <누항사> 시어의 의미	중
	10번	허난설헌, <사시사>+한자성어	상
	12번	신동엽,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	중
	13번	<춘향전> 서술자의 개입	하
	14번	황순원, <목숨이 마을의 개>	상
비문학 +작문 (8문항)	2번	조건에 맞는 토론 논제 찾기	하
	7번	문학의 이론 - 골계, 풍자, 해학 빈칸 넣기	중
	8번	문장 배열하기	중
	15번	자료를 통한 시대적 상황 파악	하
	16번	<고전파 음악> 글쓰기 전략	중
	17번	내용파악과 추론하기	중
	18번	‘자장면 문화’ 내용 파악	하
	20번	‘DDT’ 관련 설명 방식과 내용파악	중
화법 (2문항)	4번	공감적 듣기	중
	6번	토론자의 말하기 방식	중

시험 치르시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1년을 국가직만 바라보고 오신 수험생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국가직 시험은 작년에 비해 실제 난도로 쉬웠으며, 체감 난도는 더욱 그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어문규정 문제**가 없어, 이제는 **단순한 암기를 요구하는 시험이 아님을 증명하는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외래어, 로마자, 한글맞춤법, 표준어 문제를 출제하지 않아 수험생 입장에서는 조금 허무한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문학 독해 능력**이 부족했다면, 시간을 오래 투자해야 했을 것이고, 더욱이 시험이라는 긴장된 상황이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이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 자체가 까다롭지는 않아서 답을 찾는 데 크게 어려움을 없었을 문제였습니다.

또한 **문학**은 전반적으로 평이하였으나, 한자성어 문제와 함께 출제된 고전시가, 그리고 현대시 문제는 낯선 작품이어서 당황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화법과 작문**’ 영역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 국가직 문제의 변화로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이미 ‘대화의 방법’의 ‘격률’ 문제를 출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화’의 방법 중 ‘공감적 듣기’를 출제한 것이 그러합니다. 또한 이미 작년 7급 문제에서도 그러하듯, 토론의 상황을 제공해주고 말하기 전략을 묻는 문제들은 전형적인 화법 문제입니다.

국가직은 누구나 인정하듯, 암기식 문제보다는 상황판단, 자료해석, 독해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들로 변하고 있습니다. 내년을 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습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지방직과 서울시**는 여전히 그 문제의 유형이 조금씩은 상이하니 이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지방직과 서울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1년을 향해 달려오셨을 우리 수험생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길 두손 모아 응원합니다.

1.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 쌍둥이도 서로 성격이 ㉠ **다른** 법이다.
 ○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잘 ㉡ **크지** 못한다.
 ○ 남부 지방에 홍수가 ㉢ **나서** 많은 이재민이 생겼다.
 ○ 그 사람이 농담은 하지만 ㉣ **허튼** 말을 하지 않는다.
 ○ 상대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 **아닐까?**

① ㉠, ㉡

② ㉡, ㉢

③ ㉢, ㉤

④ ㉣, ㉤

✓ 해설 ②

- ㉠ 다른: '다르다'의 활용형으로 형용사이다. '다른'에 대한 주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이다.
 ㉡ 크다: 용사와 동사 두 가지의 품사를 가지는데, 여기서는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자라다'를 뜻하므로 동사이다.
 ㉢ 나다: '자연 재해가 일어나다'를 뜻하는 동사이다.
 ㉣ 허튼: '쓸데없이 헛되거나 막된'을 뜻하는 관형사이다.
 ㉤ 아니다: 형용사이다. 여기서 '아니다'는 물음이나 짐작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2. 다음의 여러 조건에 가장 잘 맞는 토론 논제는?

- 긍정 평서문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
 ○ 쟁점이 하나여야 한다.
 ○ 찬성이나 반대 어느 한 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서적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징병제도는 유지해야 한다.

② 정보통신방법을 개선할 수는 없다.

③ 야만적인 두발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④ 내신 제도와 논술 시험을 개혁해야 한다.

✓ 해설 ①

- ② 문장은 '~없다'로 끝나므로 '긍정평서문'이라는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다.
 ③ 문장의 '야만적인~'이라는 표현은 네 번째 조건에 어긋난다.
 ④ 문장은 '내신제도 개혁'과 '논술시험 개혁'이라는 두 가지 쟁점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3.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자: (관객들에게 무대와 등장인물을 설명한다.) 이곳은 황야입니다. 이리 떼의 내습을 알리는 망루가 세워져 있죠. 드높이 솟은 이 망루는 하늘로 둘러 싸여 있습니다. 하늘은 연극의 진행에 따라 황혼, 초승달이 뜬 밤, 그리고 아침으로 변할 겁니다. 저기 위를 바라보십시오. 파수꾼이 앉아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하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시커먼 그림자처럼 보입니다. 그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파수꾼이었습니다. 나의 늙으신 아버지께서도 어린 시절에 저 유명한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으셨다 합니다.

- 이강백, <파수꾼>에서

- ① 공간적 배경은 망루가 세워져 있는 황야이다.
 ② 시간적 배경은 연극의 진행에 따라 변한다.
 ③ 해설자는 무대 위의 아버지를 소개한다.
 ④ 파수꾼의 얼굴은 분명하게 알 수 없다.

✓ 해설 ③

- 마지막 문장 '나의 늙으신 아버지께서도 ~ 들으셨다 합니다.'를 통해서 아버지가 무대 위에 등장한 것이 아님을 추론할 수 있다.
 ②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이곳은 ~ 세워져 있죠.'라고 공간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③ '하늘은 연극의 진행에 따라 ~ 변할 겁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높은곳에서 ~ 그림자처럼 보입니다.'에서 파수꾼의 얼굴은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두 사람의 대화에 적용된 공감적 듣기의 방법이 아닌 것은?

“수빈 씨, 나 처음 한 프레젠테이션인데 엉망이었어.”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 봐.”
 “너무 긴장해서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구나. 처음 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 정아 씨가 긴장을 많이 했나 보다.”

- ① 수빈은 정아의 말에 자신이 주의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수빈은 정아가 계속 말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 ③ 수빈은 정아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아 스스로 정리하게끔 도와주고 있다.
- ④ 수빈은 정아의 말을 자신의 처지로 바꾸어 의미를 재구성하고 있다.

✓ 해설 ④

공감적 듣기에는 주의집중, 격려하기, 상대방의 말을 요약정리하기, 의미 재구성하기 등이 있다.

- ① 두 번째 문장에서 ‘정말?’이라는 부분과 네 번째 문장에서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구나’라는 부분에서 수빈이 정아의 말에 주의집중하고 있다.
- ② 역시 두 번째 문장에서 ‘~자세히 말해봐’와 같이 정아가 계속 말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 ③ 네 번째 문장에서 수빈은 정아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아 스스로 정리하게끔 도와주고 있다.
- ④ 수빈은 정아의 말을 자신의 처지로 바꾸어 의미를 재구성하고 있는 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5. 국어의 주요한 음운 변동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때, ‘부엌일’에 일어나는 음운 변동 유형으로 옳은 것은?

	변동 전		변동 후
㉠	XaY	→	XbY(교체)
㉡	XY	→	XaY(첨가)
㉢	XabY	→	XcY(축약)
㉣	XaY	→	XY(탈락)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①

‘부엌일’의 음운변동은
 부엌일 → (음절 끝소리 규칙, ㄴ첨가) → [부엌닐] → (비음화) → [부영닐]로 나타난다.
 따라서 ‘부엌일’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은 교체와 첨가이다.

6. 토론자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사회자: 학교 폭력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학교 폭력을 방관한 학생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를 주제로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말씀해 주시죠.

찬성 측: 친구가 학교 폭력에 의해 희생되고 있는데도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학교 폭력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폭력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과 같습니다. 폭력을 직접 행사하는 행위뿐 아니라, 불의에 저항하지 않는 정의롭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도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반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죠.

반대 측: 특정 학생에게 폭력을 직접 행사해서 피해를 준 사실이 명백할 때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건에 대한 개입과 방관은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달린 문제이므로 외부에서 규제할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측 부터 찬성 측에 대해 반론 해 주시지요.

반대 측: 과연 누구까지를 학교 폭력의 방관자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까요?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폭력을 목격했을 경우, 자신의 친구로부터 폭력에 관련된 소문을 접했을 경우 등 방관자라고 규정하기에는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처벌하려면 확고한 기준이 필요한데, 방관자의 범위부터 규정하기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찬성 측: 불의를 방관한 행위에 대해 사회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후로도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불의를 모른 채하고 방관할 것입니다. 결국 이는 사회 전체의 건전성과 도덕성을 떨어뜨릴 것이고, 정의에 근거한 시민의 고발정신까지 약화시킬 것입니다.

- ① 찬성 측은 친숙한 상황을 빗대어 자신의 견해를 펼치고 있다.
- ② 찬성 측은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여 논지를 보충하고 있다.
- ③ 반대 측은 윤리적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반대 측은 논제에 의문을 제기하여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해설 ④

①, ② 찬성 측의 주장에서 ‘친숙한 상황을 빗대어 자신의 견해를 펼치’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제시’한 부분도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반대측의 주장에서는 ‘윤리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반대측의 두 번째 발언에서 ‘과연 누구까지를 ~ 있을까요?’라는 부분에서 논제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여 주장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정답이다.

7.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한국 문학의 미적 범주에서 눈에 띄는 전통으로 풍자와 해학이 있다. 풍자와 해학은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기보다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건강한 삶의 의지에서 나온 (㉠)을(를) 통해 드러난다. (㉡)은(는) '있어야 할 것'으로 행세해 온 관념을 부정하고, 현실적인 삶인 '있는 것'을 그대로 긍정한다. 이때 있어야 할 것을 깨뜨리는 것에 관심을 집중한 것이 (㉢)이고, 있는 것이 지닌 긍정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이다.

- | | ㉠ | ㉡ | ㉢ |
|---|--------|--------|--------|
| ① | 골계(滑稽) | 해학(諧謔) | 풍자(諷刺) |
| ② | 해학(諧謔) | 풍자(諷刺) | 골계(滑稽) |
| ③ | 풍자(諷刺) | 해학(諧謔) | 골계(滑稽) |
| ④ | 골계(滑稽) | 풍자(諷刺) | 해학(諧謔) |

✓ 해설 ④

문학의 미적범주에는 골계미, 비장미, 숭고미, 우아미가 있다. 그 중 골계미의 종류에는 풍자와 해학이 있다. 골계는 '있는 것'을 긍정하면서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이 상반되는 미의식이다. 따라서 ㉠에는 골계가 정답이다. 골계 중에서 '있어야 할 것을 깨뜨리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풍자'에 해당하고, 있는 것이 지닌 긍정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해학'에 해당하므로 ④가 정답이다.

8. 다음 글에서 <보기>가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아침기도는 간략한 아침 뉴스로, 저녁기도는 저녁 종합 뉴스로 바뀌었다.

철학자 헤겔이 주장했듯이, 삶을 인도하는 원천이자 권위의 시금석으로서의 종교를 뉴스가 대체할 때 사회는 근대화된다. 선진 경제에서 뉴스는 이제 최소한 예전에 신앙이 누리던 것과 동등한 권력의 지위를 차지한다. 뉴스 타전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교회의 시간 규범을 따른다. (㉠) 뉴스는 우리가 한때 신앙심을 품었을 때와 똑같은 공손한 마음을 간직하고 접근하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 우리 역시 뉴스에서 계시를 얻기 바란다. (㉢) 누가 착하고 누가 악한지 알기를 바라고, 고통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존재의 이치가 펼쳐지는 광경을 이해하길 희망한다. (㉣) 그리고 이 의식에 참여하길 거부하는 경우 이단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 | | |
|-----|-----|
| ① ㉠ | ② ㉡ |
| ③ ㉢ | ④ ㉣ |

✓ 해설 ①

<보기>는 아침기도가 아침뉴스로, 저녁기도가 저녁 종합 뉴스로 바뀌었다는 것으로 보아 기도 시간과 관련된 내용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당 문장 앞에서 '시간'과 관련된 내용이 와야한다. ㉠앞에 '뉴스 타전은 ~ 시간 규범을 따른다.'라는 문장이 오므로 <보기>의 내용은 ㉠에 들어가는 것이 적당하다.

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헌 먼덕¹⁾ 숙여 쓰고 축 없는 짚신에 설피설피 물러오니
 풍채 적은 형용에 ㉠개 짓을 뿐이로다
 와실(蝸室)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으랴
 북창(北窓)을 비껴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대승(戴勝)²⁾은 이내 한을 돋우도다
 종조(終朝) 추창(惆悵)³⁾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 없이 들리나다
 세정(世情)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도다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에서

- ※ 1) 먼덕: 짚으로 만든 모자
 2) 대승(戴勝): 오디새
 3) 추창(惆悵): 슬퍼하는 모습

- ① ㉠은 실재하는 존재물이고, ㉡은 상상적 허구물이다.
 ② ㉠은 화자의 절망을 나타내고, ㉡은 화자의 희망을 나타낸다.
 ③ ㉠은 화자의 내면을 상징하고, ㉡은 화자의 외양을 상징한다.
 ④ ㉠은 화자의 초라함을 부각시키고, ㉡은 화자의 수심을 깊게 한다.

✓ 해설 ④

- ① ㉠과 ㉡ 모두 실재하는 존재물이다.
 ② ㉠은 화자의 절망을 나타내는 말이 맞지만 ㉡은 '한을 돋우도다'라는 표현에서 희망을 나타낸다는 표현은 옳바르지 않다.
 ③ ㉠은 화자의 내면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초라한 외면을 부각시키고, ㉡은 화자의 외양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한스러운 감정을 심화시키고 있다.
 ④ ㉠의 '개'가 화자의 초라함을 부각시키고, ㉡의 '대승'은 시적 화자의 한을 돋우는 존재이므로 화자의 수심을 깊게한다고 할 수 있다.

10. 화자의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한 한자 성어는?

미인이 잠에서 깨어 새 단장을 하는데
향기로운 비단, 보배 띠에 원앙이 수놓였네
겹발을 비스듬히 걷으니 비취새가 보이는데
게으르게 은 아쟁을 안고 봉황곡을 연주하네
금 재갈, 꾸민 안장은 어디로 떠났는가?
다정한 앵무새는 창가에서 지저귀네
풀섶에 놀던 나비는 뜰 밖으로 사라지고
꽃잎에 가리운 거미줄은 난간 너머에서 춤추네
뉘 집의 연못가에서 풍악 소리 울리는가?
달빛은 금 술잔에 담긴 좋은 술을 비추네
시름겨운 이는 외로운 밤에 잠 못 이루는데
새벽에 일어나니 비단 수건에 눈물이 흥건하네

— 허난설헌, <사시사(四時詞)>에서

- ① 琴瑟之樂 ② 輾轉不寐
③ 錦衣夜行 ④ 麥秀之嘆

✓ 해설 ②

허난설헌의 '사시사'는 임을 그리워 하는 마음을 담은 한시이다. 4수로 된 한시로, <난설헌집>의 칠언 고시조에 수록되어 있다. 임을 그리워하는 규방 여인의 심정을 사계절의 변화에 맞추어 '춘사, 하사, 추사, 동사'로 나누어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각 수마다 서로 다른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모두 부재하는 임으로 인해 외로움을 느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시름겨운 이는 외로운 밤에 잠 못 이루는데'에서 임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고, '새벽에 일어나니 비단 수건에 눈물이 흥건하네'에서 화자의 외롭고 슬픈 감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화자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한자성어는 輾轉不寐(전전반측)이다.

- ① 琴瑟之樂(금슬지락) : 거문고와 비파의 조화로운 소리, 즉 부부 사이의 다정하고 화목한 즐거움을 나타낸다.
② 輾轉不寐(전전반측) : 걱정이 많아 이리 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
③ 錦衣夜行(금의야행) :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거닌다는 말로, 아무 보람없는 행동을 일컫는다.
④ 麥秀之嘆(맥수지탄) : 보리만 무성하게 자란 것을 탄식하는 표현으로 고국의 멸망을 탄식함을 의미한다.

11.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국어의 높임법에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상대 높임법,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 서술어의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 등이 있다. 이러한 높임 표현은 한 문장에서 복합적으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의 경우 대화의 상대, 서술어의 주체, 서술어의 객체를 모두 높인 표현이다.

- ①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댁에 들어가셨다.
② 제가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③ 어머니께서 아주머니께 이 김치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④ 주민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설 ③

객체 높임의 문제가 출제되면

1단계: 선어말 어미 '-시-'와 특수어위를 통해 주체높임법을 먼저 찾는다.

2단계: 대화상황인지 확인, 청자의 유무를 통해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상대높임이 있는지 확인한다.

3단계: 모시다, 드리다, 뵙다, 여쭙다 - 객체높임의 특수어위를 찾는다.

- ① 주체높임, 객체높임 사용
② 객체높임, 상대높임의 사용
③ 주체, 객체, 상대 모두 사용됨.
④ 주체, 상대높임의 사용.

12. 다음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리워진 안개를 걷게 하라,
국경이며 탑이며 어용학(御用學)의 울타리며
죽 가래 밀어 바다로 몰아 넣라.

하여 하늘을 흐르는 날새처럼
한 세상 한 바람 한 햇빛 속에,
만 가지와 만 노래를 한 가지로 흐르게 하라.

보다 큰 집단은 보다 큰 체계를 건축하고,
보다 큰 체계는 보다 큰 악을 양조(釀造)한다.

조직은 형식을 강요하고
형식은 위조품을 모집한다.

하여, 전통은 궁궐안의 상전이 되고
조작된 권위는 주위를 침식한다.

국경이며 탑이며 일만년 울타리며
죽 가래 밀어 바다로 몰아 넣라.

— 신동엽,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에서

- ① 직설적인 어조로써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② 고전적인 질서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추구하고 있다.
③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대조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④ 농기구의 상징을 통해 체제 개혁을 역설하고 있다.

✓ 해설 ②

- ① “죽 가래 ~ 몰아 넣라”, “보다 큰 체계는 ~ 양조한다” 등에서 직설적인 어조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③ ‘국경, 탑, 어용학’ 등은 조직이 강요하여 만들어 낸 권위의 상징으로 인위적인 것이고, ‘하늘을 흐르는 날새’는 자연적인 것으로 서로 대조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④ ‘가래로 밀어 바다로 몰아넣라’라는 표현을 통해 농기구인 ‘가래’를 이용하여 개혁을 역설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3. ㉠~㉣ 중 서술자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때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군노가 오는지 모르고 주야로 도련님을 생각하여 우는데, ㉠ 생각지 못할 우환을 당하려 하니 소리가 화평할 수 있겠는가. 한때나마 빈방살이 할 계집아이라 목소리에 청승이 끼어 자연히 슬픈 애원성이 되니 ㉡ 보고 듣는 사람의 심장인들 아니 상할 것인가. 임 그리워 서러운 마음 밥맛없어 밥 못 먹고 불안한 잠자리에 잠 못 자고 도련님 생각으로 상처가 쌓여 피골이 상접하고 양기가 쇠진하여 진양조 울음이 되어 노래를 부른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입을 따라 갈까 보다. 천 리라도 갈까 보다. 만 리라도 갈까 보다. 바람도 쉬어 넘고 수진이 날진이 해동청 보라매도 쉬어 넘는 높은 고개 동선령 고개라도 임이 와 날 찾으면 신발 벗어 손에 들고 아니 쉬고 달려가리. ㉢ 한양 계신 우리 남군 나와 같이 그리워하는가, 무정하여 아주 있고 나의 사랑 옮겨다가 다른 입을 사랑하는가? ㉣ 이렇게 한참을 서럽게 울 때 사령 등이 춘향의 슬픈 목소리를 들으니 목석이라도 어찌 감동을 받지 않겠는가? 붉은 녹두 온몸에 맥이 탁 풀렸다.

—작자 미상, 춘향전에서—

- ① ㉠ ② ㉡
③ ㉢ ④ ㉣

✓ 해설 ③

서술자의 개입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을 평가하거나, 작품 속 인물의 심리를 표현 또는 작품의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은 춘향이 부르는 노래에 해당하므로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볼 수 없다. 반면 ㉠, ㉡, ㉢에는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난다.

14.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네 사람들이 방앗간의 터진 두 면을 둘러쌌다. 그리고 방앗간 속을 들여다보았다. 과연 어둠 속에 움직이는 게 있었다. 그리고 그게 어둠 속에서도 흰 짐승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분명히 그놈의 신동이 깨다. 동네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죄어들었다. 점점 뒤로 움직여 쫓기는 짐승의 어느 한 부분에 불이 켜졌다. 저게 산개의 눈이다. 동네 사람들은 몽둥이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속에서 간난이 할아버지도 몽둥이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한 걸음 더 죄어들었다. 눈앞의 새파란 불이 빠져나갈 틈을 엿보듯이 획 한 바퀴 돌았다. 별나게 새파란 불이었다. 문득 간난이 할아버지는 이런 새파란 불이란 눈앞에 있는 신동이게 한 마리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럿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합쳐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신동이개의 배속에 든 새끼의 뿔까지 합쳐진 것이라는. 그러자 간난이 할아버지의 가슴속을 흘러 지나가는 게 있었다. 짐승이라도 새끼 뱀 것을 차마?

이때에 누구의 입에선가, 때레라! 하는 고향 소리가 나왔다. 다음 순간 간난이 할아버지의 양옆 사람들이 옥 개를 향해 달려들며 몽둥이를 내리쳤다. 그와 동시에 간난이 할아버지는 푸른 불꽃이 자기 다리 곁을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뒤이어 누구의 입에선가, 누가 빈틈을 냈어? 하는 흥분에 찬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저마다, 거 누구야? 거 누구야? 하고 못마땅해 하는 말소리 속에 간난이 할아버지 턱밑으로 디미는 얼굴이 있어,

“아즈반이웨다레”

하는 것은 동장네 절가였다.

— 황순원, <목님이 마을의 개>에서

- ① 토속적이면서도 역센 삶의 현장을 그리고 있다.
② 신동이의 새파란 불은 생의 욕구를 암시한다.
③ 간난이 할아버지에게서 생명에 대한 외경을 느낄 수 있다.
④ 동장네 절가는 간난이 할아버지의 행동에 동조하고 있다.

✓ 해설 ④

- ①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언을 통해 토속적인 면을 볼 수 있고, 집단적으로 동네 사람들이 신동이를 때려잡으려는 행동을 통해 역센 삶의 현장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여기서 새파란 불은 ‘신동이의 눈’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새끼를 뱀 어미개가 끈질기게 생존하려는 신동이개의 생의 욕구를 암시하고 있다.
- ③ ‘짐승이라도 새끼 뱀 것을 차마?’라는 간난이 할아버지의 생각에서 생명존중에 대한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
- ④ ‘뒤이어 누구의 입에선가 ~ 동장네 절가였다.’ 부분에서 동장네 절가가 간난이 할아버지의 행동에 동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15. (가)와 (나)를 통해서 추정하기 어려운 내용은?

(가) 찬성공 형제께서 정정부인의 상(喪)을 당하였다. 부윤공의 부인이 씨가 우연히 언문 소설을 읽다가 그 소리가 밖으로 들렸다. 찬성공이 기뻐하지 않으며 제수를 계단 아래에 서게 하고, “부녀자의 무식을 심하게 책망할 필요는 없지만, 어찌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예의에 어긋난 책을 소리 내어 읽어서 스스로 평민과 같아지려 할 수 있는가?” 하고 꾸짖었다.

(나) 전기수: 늙은이가 동문 밖에 살면서 입으로 언문 소설을 읽었는데, 속향전, 소대성전, 심청전, 설인귀전 과 같은 전기소설이었다. ...잘 읽었기 때문에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빙 둘러섰다. 가장 재미있고 긴요하여 매우 들을 만한 구절에 이르면 갑자기 침묵하고 소리를 내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 다투어 돈을 던졌다. 이를 바로 ‘요전법(돈을 요구하는 법)’이라 한다.

- ① 상중 남성들은 상중의 예법에 대해 매우 엄격하였다.
- ② 혼자 소설을 보면서 소리 내어 읽기도 하였다.
- ③ 하층에서도 소설을 창작하는 사람이 많았다.
- ④ 상층이 아닌 하층에서도 소설을 즐겼다.

✓해설 ③

- ① (가)에서 찬성공이 ‘어찌 상중에 있으면서 ~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상중 남성들은 상중의 예법에 대해 매우 엄격한 것을 알 수 있다.
- ② (가)에서 ‘부윤공의 부인 이 씨가 ~ 그 소리가 밖으로 들렸다’부분에서 혼자 소설을 보면서 소리 내어 읽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하층에서 소설을 창작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부분은 (가)나 (나)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내용이다.
- ④ (가)의 찬성공의 말에서 하층에서도 소설을 즐겼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나)의 전반적인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6. 다음 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고전과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 서양 음악의 뿌리는 종교 음악에서 비롯되었다. 바로크 시대까지는 음악이 종교에 예속되어 있었으며, 음악가들 또한 종교에 예속되어 있었다. 고전과는 이렇게 종교에 예속되었던 음악을, 음악을 위한 음악으로 정립하려는 예술 운동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종래의 신을 위한 음악에서 탈피해 형식과 내용의 일체화를 꾀하고 균형 잡힌 절대 음악을 추구하였다. 즉 ‘신’보다는 ‘사람’을 위한 음악, ‘음악’을 위한 음악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여 준 것이다.

또한 고전과 음악은 음악적 형식과 내용의 완숙을 이룬 음악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 음악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들이 배출되기도 하였다. 이때에는 성악이 아닌 기악만으로도 음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교향곡의 기본을 이루는 소나타 형식이 완성되었다. 특히 옛 그리스나 로마 때처럼 보다 정돈된 형식을 가진 음악을 해 보자고 주장하였기에 ‘옛것에서 배우자는 의미의 고전’과 ‘청정하고 우아하며 허름 없음, 최고의 예술적 경지에 다다름으로서의 고전’을 모두 지향하게 되었다.

이렇듯 역사적으로 고전과 음악은 종교의 영역에서 음악 자체의 영역을 확보하였으며 최고 수준의 음악적 내용과 형식을 수립하였다. 고전과 음악이 서양 전통 음악 전체를 대표하게 된 것은 고전과 음악이 이러한 역사적인 성과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고전 음악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전과 음악의 성격과 특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① 고전과 음악이 지닌 음악사적 의의를 밝힌다.
- ② 고전과 음악의 음악가를 예시하여 이해를 돕는다.
- ③ 고전과 음악의 특징이 형식과 내용의 분리에 있음을 강조한다.
- ④ 질문을 통해 화제를 제시함으로써 호기심을 유발한다.

✓해설 ③

- ① 고전과 음악이 지닌 음악사적 의의는 첫 번째, 마지막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두 번째 단락의 “이 시기에는 하이든 ~ 배출되기도 하였다”에서 고전과 음악의 음악가를 예시로 들고 있다.
- ③ 첫 번째 단락의 고전과 음악이 종래의 신을 위한 음악에서 탈피해 ‘형식과 내용의 일체화’를 꾀했다는 부분에서, 고전과 음악의 특징이 형식과 내용의 분리에 있다는 ③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첫 단락 첫 문장에서 ‘고전과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라고 질문을 통해 화제를 제시하여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17. (가)를 바탕으로 (나)에 담긴 글쓴이의 생각을 적절히 추론한 것은?

(가) 철학사에서 합리론의 전통은 감각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예컨대 플라톤은 감각이 보여 주는 세계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적으로 불안정한 세계로 간주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반대로 경험론자들은 우리의 모든 관념과 판단은 감각 경험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지식도 절대적으로 확실할 수는 없다고 결론짓는다.

(나) 모든 사람은 착시 현상 등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에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감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모든 감각적 정보를 검증 절차를 거친 후 받아들이다가는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 행동과는 달리 과학적 연구는 상당한 정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므로 경험적 자료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도 당연하다.

- ① 실용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경험론적 사고에 토대를 둔다.
- ②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일상생활에서는 합리론적 사고를 우선하여야 한다.
- ③ 과학 연구는 합리론을 버리고 철저히 경험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④ 감각에 대한 신뢰는 어느 분야에나 전적으로 차별 없이 요구된다.

✓ 해설 ①

① 글쓴이는 (나)에서 실용적 기술개발, 일상적 행동과 과학적 연구에서 '감각'을 인식하는 태도를 달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실용적 기술개발이나 일상적 행동을 할 때에는 '감각'을 무조건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되며, '감각'에 의존하여 판단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에 과학적인 연구를 할 때에는 '감각'에 의한 판단이 적절한지 경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①과 일치한다.

② (가)에서 '합리론적 사고'는 감각이 보여 주는 세계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불안정한 세계라고 생각했고 (나)에서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감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합리론적 사고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추론은 잘못되었다.

③ (나)에서 과학적 연구는 '경험적 자료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과학 연구가 경험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추론은 잘못되었다.

④ 글쓴이는 감각에 대한 신뢰가 어느 분야인지에 따라 달리 받아들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8.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밀기 어렵겠지만 자장면 문화와 미국의 피자 문화는 닮은 점이 많다. 젊은 청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닮은꼴이다. 이사한다고 짐을 내려놓게 되면 주방 기구들이 부족하게 되고 이때 자장면은 참으로 편리한 해결책이다. 미국에서의 피자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아이들의 친구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 피자는 참으로 편리한 음식이다.

남자들이 군에 가 훈련을 받을 때 비라도 추적추적 오게 되면 자장면 생각이 제일 많이 난다고 한다. 비가 오는 바깥을 보며 따뜻한 방에서 입에 자장을 묻히는 장면은 정겨울 수밖에 없다. 프로 농구 원년에 수입된 미국 선수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피자를 시켜 먹었다고 한다. 음식이 맞지 않는 탓도 있었지만 향수를 달래고자 함이 아닐까?

짜게 먹을 수 있는 이국 음식이란 점에서 자장면과 피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외식을 하기엔 부담되고 한번쯤 식단을 바꾸어 보고 싶을 즈음이면 중국식 자장면이나 이탈리아식 피자는 한국이나 미국의 서민에게 안성맞춤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피자 배달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피자를 간식이 아닌 주식으로 삼고자 하는 아이들도 생겼다. 졸업식을 마치고 중국집으로 향하던 발걸음들이 이제 피자집으로 돌려졌다. 피자보다 자장면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 ① 피자는 쉽게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편리한 음식이다.
- ② 자장면과 피자는 이국적인 음식이다.
- ③ 자장면과 피자는 값이 싸면서도 기분 전환이 되는 음식이다.
- ④ 자장면은 특별한 날에 어린이들에게 여전히 가장 사랑받는 음식이다

✓ 해설 ④

① 첫 번째 문단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한다'는 점, '피자는 참으로 편리한 음식이다'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 '이국 음식이란 점에서 자장면과 피자'라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두 번째 문단에서 자장면이 정겨운 감정을 들게 하여, 피자가 향수를 달래 준다'고 표현한 부분과, 세 번째 문단에서 '짜게 먹을 수 있는 이국음식이라는 점에서 자장면과 피자'라고 표현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마지막 문단에 '졸업식을 마치고 ~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라는 부분을 통해 자장면이 특별한 날에 어린이들에게 여전히 가장 사랑받고 있다고 할 수 없다.

19. 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의 개념에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의어는 서로 경쟁을 통해 하나가 없어지거나 각기 다른 의미 영역을 확보하는 등의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현실 언어에서 동의어로 공존하면서 경쟁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으며, 한쪽은 살아남고 다른 쪽은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동의 충돌의 결과 의미 영역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의미 축소, 의미 확대, 의미 교체 등으로 구분된다.

- ① ‘가을걷이’와 ‘추수’는 공존하며 경쟁하고 있다.
- ② ‘말미’는 쓰지 않고 ‘휴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 ③ ‘얼굴’은 ‘형체’의 뜻에서 ‘안면’의 뜻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 ④ ‘겨레’는 ‘친척’의 뜻에서 ‘민족’의 뜻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해설 ②

위 글에서는 두 개 이상의 동의어가 경쟁 과정에서 공존하거나 또는 한쪽이 소멸하는 등의 다양한 과정을 겪는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예로는 ①, ③, ④가 해당한다.

하지만 ②의 ‘말미’는 ‘일정한 직업이나 일 따위에 매인 사람이 다른 일로 말미암아 얻는 겨를’을 의미하고 ‘휴가’는 ‘직장·학교·군대 따위의 단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쉬는 일. 또는 그런 겨를’을 뜻한다. 따라서 의미상으로 차이가 있는 ‘말미’를 쓰지 않고 ‘휴가’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2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20세기 들어서 생태학자들은 지속성 농약이 자연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힐 수 있었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서 해충 구제용으로 널리 사용됨으로써 농업 생산량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한 디디티(DDT)는 유기 염소계 살충제의 대명사이다.

(나) 그렇지만 이 유기 염소계 살충제는 물에 잘 녹지 않고 자연에서 햇빛에 의한 광분해나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분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디디티는 토양이나 물속의 퇴적물 속에 수십 년간 축적된다. 게다가 디디티는 지방에는 잘 녹아서 먹이사슬을 거치는 동안 지방 함량이 높은 동물 체내에 그 농도가 높아진다. 이렇듯 많은 양의 유기 염소계 살충제를 체내에 축적하게 된 맹금류는 물질대사에 장애를 일으켜서 껍질이 매우 얇은 알을 낳기 때문에, 포란 중 대부분의 알이 깨져 버려 멸종의 길을 걷게 된다.

(다) 디디티는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뿌려진 디디티는 물과 공기, 생물체 등을 매개로 세계 전역으로 퍼질 수 있다. 그래서 디디티에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 알래스카 지방의 에스키모 산모의 젖에서도 디디티가 검출되었고, 남극 지방의 펭귄 몸속에서도 디디티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생물 농축과 잔존성의 특성이 밝혀짐으로써 미국에서는 1972년부터 디디티 생산이 전면 중단되었고,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유기 염소계 농약의 사용이 대부분 금지되었다.

(라) 이와 같이 디디티의 생물 농축 현상에서처럼 생태학자들은 한 생물 종에 미치는 오염의 영향이 오랫동안 누적되면 전체 생태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래서인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소한 환경오염 행위가 장차 어떠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① (가)는 중심 화제를 소개하고, 핵심어를 제시함으로써 전개될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 ② (나)는 디디티가 끼칠 생태계의 영향을 인과 분석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③ (다)는 디디티의 악영향을 제시하고, 그것의 사용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 ④ (라)는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해설 ③

① (가)에서 중심화제인 ‘농약이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과 핵심어인 디디티(DDT)를 소개하여 전개될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② (나)에서는 디디티가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다는 점, 디디티가 토양과 동물의 체내에 축적된다는 특성을 설명하여 그 결과 맹금류가 멸종의 길을 걷게 된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인과 분석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 맞다.

③ (다)에서 디디티의 위험성 때문에 디디티의 생산이 중단되었다고 하였지 글쓴이가 디디티를 사용금지하자는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

④ (라)는 ‘생태학자들은 ~발견하였다’ 부분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암시하고 있다.